



대형선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현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서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자: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임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음 선원 ● FAX: (031)470-3116



무주상 보시여야 더 크게 받아

▲스님: 여러분은 질문하시고 또 나는 대답하면서 서로 서로가 이어가는 진리를 탐구하는 뜻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질문자: 한국에서도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불법에서는 자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 사람은 육신이 자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본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불성의 집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불성과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자기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모든 걸 확대해서 굴러가는 뜻이고, 불성은 힘을 배출해 주는 겁니다. 바뀌어 굴러갈 때 중심이 있어서 바뀌어 이따를 안하고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통이 속에 의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모습과 의식과 생명이 몸통이 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관하면 벌써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육체 이끌어

사람의 구조도 너무나 질서정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입력이 된 대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입력이 되는 대로 의식이, 의식 속에 차례로 입력이 된 자체가 그 시기가 되면 그냥 발사가 되는 거죠. '넌 죽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인과성 등 다섯 가지가 주둔을 하는 겁니다. 세균성·인과성·유전성·업보성·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요.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의식이 자꾸 충동을 합니다. 이 세상이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죠. 상대성의 핑계가 돼 가지고 그냥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폭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이예요.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즉 말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큰 일이 앞에 닥쳤을 때 자기가 딴고자 하는 것이 허탈할 때, 허탈할 때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가를 제시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자: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음악 공부를 박사과정 에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직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이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수가 돼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겠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제가 그 공부를 하는 시간에 차라리 병원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여기 많은 청년들도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자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스스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이 길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그것은 빈약한 생각이죠. 사람은 물질로써 보시를 하는 거보다도 마음

으로, 일체제불이라는 노래가 있죠. 음파를 통해서 전 우주에 전해도 좋겠다면서 오하러 그 음파를 통해서 전부 마음들이 개선되고 지혜로워지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런 말을 했죠. 물질하나를 보시하는 것 보다는, 물질은 당장 쓰고 나면 그만이고 먹고 나면 그만이지만 공심으로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일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너무도 크고 광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남이 보게 내가 얼마를 시주했다, 얼마를 줬다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하는데 함이 없어야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미 무주상 보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갈 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가지요?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값어치대로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에게 돈을 준 게 없지요. 그 사람은 돈을 더 받은 게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했으니까 피장파장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줬으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무주상 보시를 했다면 그 값어치를 더 크게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말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한다면 그 이상 거를 받지 못해요. 한 게 없기 때문에, 입으로 구입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법우가 노래를 한마디 하는데 그냥 하거나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그렸단다 하거나 한다면 살아있는 노래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아다니게 그림도 그려야 하고 음성도 그렇게 낸다면 그 음성이 가사에 의해서, 그 가사의 용도에 따라서 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건질 수 있는 가사나, 또 남을 이롭게 하는 가사나, 평화롭게 하는 가사나, 가사에 따라서 음성이 음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공부입니다. 세세생생 끝간데 없이 말입니다. 지구가 끝이 없듯이,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게 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 못하는 돌이라 해도, 이거는 내가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공부를 했다면 끝나무도 전부 같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물에는 용신이 있고, 산에는 주산신이 있듯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모두 통해서 남이 아니고 서로가 조직적인 우주 전체가 조직적인 진리로서 예누리 하나 없이 진행해 나간단다. 이런 것이 틀림없죠. 질서정연해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말이 질서정연치 못하니까 질서정연치 못하게 세상이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득이 없고, 자기를 자기가 망치고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회사가 망하게 되었더라. '내일이면 딱 부도가 나는데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전부 죽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더볼어 같이 살아야 할텐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이 이 마음공부를 그래도 웬만큼 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 모든 것을 거기가 다 맡겼으면 됐다'가 됐다 하지 말고 저 나무들이 썩게 되고 뿌리가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뿌리가 같이 붙어있어. 주인공이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 뿌리를 믿고서 썩은 편안하게 웃고 부지런히 휘가만 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빙그르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그것을 다 살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럼 우연이나, 우연이 절대 아니죠. 우연은 절대 없어요. 모두가 여러분

이 하기에 달린 거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만큼 알면 나도 요만큼 밖에 얘기 못하고, 여러분이 이만큼 알면 나도 이만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지 않으면 생각을 했죠. 물질하나를 보시하는 것 보다는, 물질은 당장 쓰고 나면 그만이고 먹고 나면 그만이지만 공심으로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일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너무도 크고 광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남이 보게 내가 얼마를 시주했다, 얼마를 줬다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하는데 함이 없어야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미 무주상 보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갈 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가지요?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값어치대로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에게 돈을 준 게 없지요. 그 사람은 돈을 더 받은 게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했으니까 피장파장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줬으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무주상 보시를 했다면 그 값어치를 더 크게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말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한다면 그 이상 거를 받지 못해요. 한 게 없기 때문에, 입으로 구입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법우가 노래를 한마디 하는데 그냥 하거나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그렸단다 하거나 한다면 살아있는 노래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아다니게 그림도 그려야 하고 음성도 그렇게 낸다면 그 음성이 가사에 의해서, 그 가사의 용도에 따라서 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건질 수 있는 가사나, 또 남을 이롭게 하는 가사나, 평화롭게 하는 가사나, 가사에 따라서 음성이 음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공부입니다. 세세생생 끝간데 없이 말입니다. 지구가 끝이 없듯이,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게 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 못하는 돌이라 해도, 이거는 내가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공부를 했다면 끝나무도 전부 같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물에는 용신이 있고, 산에는 주산신이 있듯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모두 통해서 남이 아니고 서로가 조직적인 우주 전체가 조직적인 진리로서 예누리 하나 없이 진행해 나간단다. 이런 것이 틀림없죠. 질서정연해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말이 질서정연치 못하니까 질서정연치 못하게 세상이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득이 없고, 자기를 자기가 망치고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회사가 망하게 되었더라. '내일이면 딱 부도가 나는데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전부 죽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더볼어 같이 살아야 할텐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이 이 마음공부를 그래도 웬만큼 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 모든 것을 거기가 다 맡겼으면 됐다'가 됐다 하지 말고 저 나무들이 썩게 되고 뿌리가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뿌리가 같이 붙어있어. 주인공이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 뿌리를 믿고서 썩은 편안하게 웃고 부지런히 휘가만 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빙그르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그것을 다 살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럼 우연이나, 우연이 절대 아니죠. 우연은 절대 없어요. 모두가 여러분

해주거나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삼살방이 들어서 이사를 못 간다 이러거든. 삼살방이 들어서 이사를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삼살방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터졌다 이거야.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우리가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은산 철벽도 뚫을 수가 있어요. 강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허공도 날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는 관습이 있으니까 힘든 거지.

마음은 착오 안 생겨

▲질문자: 저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도 사실은 물리학을 전공 하려던 동기가 물리학을 하게 되면 참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마음은 빛보다 밝아서 아니 가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음이 빛보다 빠르다는 그 얘기보다도 무한하다는 거, 순간적으로 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지요.

▲스님: 빛보다 빠르다는 것은, 빛은 가

다가도 착오가 생겨요. 안 그렇까요? 빛은 가다가도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무한해서 어디고 착오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가고 싶어 없이 가고 오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고 아는 거, 또 남의 말을 듣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거, 모든 것을 다 본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실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신통을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 오신통을 벗어나게 되는 거는 즉 말하자면 대뇌를 통해서 뉴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천체 물리학도 되고 심성의학도 되고 또는 심성과학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번 몸으로 비유할 때 몸 하나에 수 백, 아니 헤아릴 수 없는 모습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태초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스님 법문집을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생이 '아, 태초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티끌이 묻어 가지고 윤회의 고해를 견는가?' 그래서 태초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다면 윤회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는 그게 바로 우리가 시비 분별하는 개념, 이 차원 속에서 일을 대하기 때문에 통 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개념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태초가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그 묻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스님: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교를 믿을 때 타의의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서 기도하고 빌 때는 지났어요. 정말 지나야 되고요. 종교라는 건 이름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진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문제죠. 지금은 '나 좀 잘 살게 해 주시요. 못 살게 해주시요.' 하고 기도할 때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부처님의 형상은 여러분의 형상과 틀이 아니요, 마음도 틀이 아니고 생명이 틀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믿는다고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게 보셨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모셔 놓고 '당신하고 틀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야 될텐데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전부 이름과 형상을 믿으라고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요. 그렇게 밖에 안 된다면 지금 살아나가는 각자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자재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남한테 만날 빌어야만 하니까, 얻어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그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람 · 흙 · 먼지 · 물이 한데 합쳐져 자꾸자꾸 모여 보셨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나, 따뜻한 온기가 나오죠? 그게 불이에요. 생명! 태초에 생기는 생명이에요. 그게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체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다 생기고 제일 나중에 생긴 게 사람에게요. 왜냐? 미생물이 생겼으니까, 미생물이 진화되고 형성되고, 진화되고 형성되고 이따가 사람이 생기고 제일 나중에 등장한 거죠. 이게 관한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자: 아닙니다.

▲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또 한가지 배울 게 있는 게요. 미생물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일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전부 내 아버지 아님이 없고, 내 어머니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전자에 내가 사람이 되기 이전에 너의 아버지 할 수도 있고, 너의 어머니 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광대하다고 하느냐면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전자에 미련했을 때에 그 모습입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자기 아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한테 보이 지 않는 정신계에서 스스로 인정받고, 참 착하구나, 정말이지 착하구나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먹고 남한테 추앙 받게 되고 스스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가 어디냐? 지수화풍이예요. 사람들 지수화풍으로 된 게 아니죠. 미생물에서부터 죽어가지면 전부가 지수화풍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지수화풍으로 돼 가지고 지수

화풍을 먹구요,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어때요? 예누리가 없어요. 지수화풍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보세요. '내가 죽을 때는 지수화풍이 딱 벌어져 내지는 내가 찾아간다. 바람은 바람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흙은 흙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물은 물대로 자기가 찾아가고 불은 불대로 자기가 찾아가요. 어때요?'

▲질문자: 맞습니다.

▲스님: 허허허, 그리고 남는 거라고는 바로 불성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자체가 남기 때문에 그 불성의 뿌리가 바로 다시 환생해서 이 세상에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것이 저 흔하게 별성이나 우리 마음의 별성이나 불성이나 똑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별성 자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과 육신,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면 물질계 나와 정신계 나가 틀이 아니게끔 통신이 되고 안다면 바로 정신계의 불성이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그 모두를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생을 통해서 세세생생 끝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출 수 있고 자유권을 얻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내 집안이 안 된다, 된다는 따지고 형상을 놓고 고행상을 걸어 놓고 빌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빌고 기도해서 나 좀 잘 살게 해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어느 집에서 부모가 80살이 넘어서 벽에다 똥을 바르고 망령을 부려서 식구들이 도저히 살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업이야.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부모도 당신한테 그 고통을 주고, 부모는 처리 못 르니까 낫지만 아는 당신네들이 더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래 당신네들이 지어 놓고 당신네들이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는가 하고 각자 자기의 탓을 하고 마음을 돌린다면 당신네들 걱정근심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내 부모 형제

나는 '내가 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이 해라 이겁니다. 당신네들도 나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당신네들이 못하느냐 이거야. 그래 그렇게 일러 줬더니 얼마 있다가 와서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일러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합니까? 조금도 귀찮게 안 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귀찮게 안하고 돌아가신 거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서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인자하게 태어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지요. 그게 법이죠. 그래서 몸으로부터 가만히 보세요. 공생 · 공심 · 생명이 많으니까 공생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또 생명체가 많고 의식이 있고 생각을 하니 모두가 공심이죠. 또 몸체가 다 각각 작용을 하니까 바로 공용이죠. 또 공체이죠. 같이 모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식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 어떻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관하면 아픈 거는 '주인공! 당신밖에 낫게 할 수 없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이런단다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가 돼 줘요. 또 나를 지켜줘서 지켜주는 사람들 보니까 '아,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하면 보디가드가 돼 주고요. '너만이 해결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는 해결사가 돼 주거든요. 이것을 빌로 비유했느냐 하면 관세를 보살 · 지장보살 · 칠성 또는 문수보살 · 보현보살 등 각종의 이름은 그때의 이름인 거예요. 지금은 용어가 전부 바뀌어서 지켜주는 사람을 보디가드라고 하고, 하하하. 모두 그렇게 변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변명된 대로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다 관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공부를 못할 때는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도 너 뿐이야. 네가 형성 시켰으니까 하는 거죠. 자기 몸을 자기가 형성시키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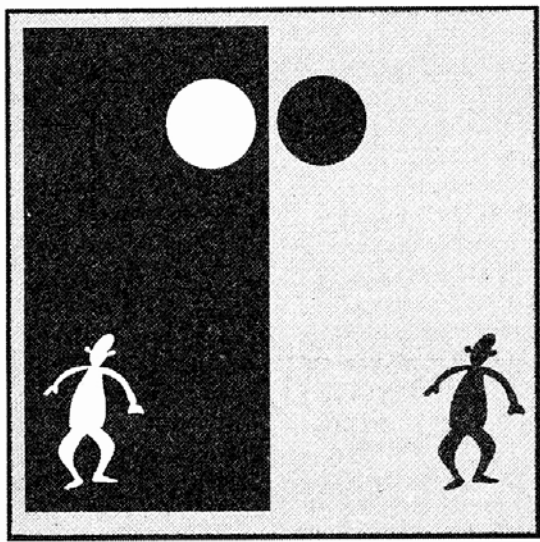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